

울곡 개혁사상의 본질과 현대

崔根德

〈성균관대 교수〉

이 자료들은 지난 5월 18일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열린 울곡학회 주최 「울곡사상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1. 개혁의 본질과 그 지도자

개혁이란 무엇인가. 옛것을 고치는 것이다(變其故). 왜 고쳐야 하는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가기 마련이고 낡으면 새롭게 고쳐가야 한다.

栗谷은 말한다.

「때에 따라 變易하는 것은 일정불변의 법칙이다. 법은 시대의 요청으로 제정하는 것이니까 시대가 변하면 법도 같지 않게 되는 것이다.」(隨時變易 乃常道也 法因時制 時變則法不同)

시간은 곧 역사라는 것을 감안하면 개혁은 바로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동시에 새로운 창조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울곡은 역사발전에 있어서 정치의 역할을 중시한다. 그리고 정치는 지도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정치발전을 다섯 단계로 설정한다.

첫째는 지도자의 뜻을 세움(立志)이고, 둘째는 인재등용(用賢)이며, 셋째는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安民)이고, 넷째는 교육이며, 다섯째는 국가발전의 名分(목표)를 바로 잡는 것(正名)이다.

栗谷은 「사회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이며 그것

의 주체는 인간」이라고 했다. 그는 말한다.

「천하의 일은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서고 국가의 형세는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 진보와 쇠퇴·평화와 혼란은 진실로 그 운수가 있는 것이고 진보·쇠퇴·평화·혼란이 초래되는 바는 실상 인간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君은 마땅히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기미를 살펴서 평화가 이룩되게끔 힘쓰고 혼란이 오지 않게끔 그 원인을 제거해서 반드시 치세를 期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少成에 만족하거나 常規에 국한하거나 어정어정해서 성패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그래서 人君, 즉 지도자의 입지를 촉구한다. 개혁으로 가는 첫 시동이다.

至治, 이른바 이 땅 위에 태평성세를 이룩할 정치를 펴려는 굳건한 뜻이 세워지면 「功을 함께 이룩할」(共成基功) 인재를 얻어야 한다. 국가경영을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중지를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으로 가는 출발선하다. 신호가 울릴 때가 되면 선수들은 이미 출발선상에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선두주자는 되겠지만 다른 선수들도 어깨를 겨누어야 한다. 공성기공할 현자들이기 때문이다.

2. 개혁과 時宜

지도자의 결연한 뜻이 서고(立志) 함께 일할 인제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인민의 정치에 착수한다. 栗谷은 말한다.

「먼저 폐단을 낳는 법을 개혁해서 민생을 구제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쥐서 첫째로 잘못된 법을 알아내고 둘째로 개혁의 방향을 가늠하며 셋째로 개혁의 방안을 정립한다.

그런데 개혁에 착수하는 시기가 문제다. 栗谷은 「時宜」라는 말을 쓴다. 「때의 마땅함」 곧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뜻이다. 그는 말한다. 「時宜라는 것은 때에 따라 변통하고 법을 베풀어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이른다.」(時宜者 隨時變通 說法求民之謂也)

그래서 그는 萬言對事의 첫머리에 「정치는 때를 아는 것이 貴하다」(政貴知時)고 한 것이다.

때를 어떻게 아는가. 그는 같은 글에서 程伊川이 易을 논한 말을 인용해 「때를 알고 형세를 아는 것이 易을 배우는 본령」이라고 한다.

易의 革卦는 개혁의 卦이다. 栗谷의 時宜는 바로 이 革卦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革卦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개혁은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결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선 革卦는 井卦 바로 뒤에 있다. 우물속에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 밖에 없다. 바뀌어야 맑게 된다.

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암시하고는 卦辭에서 말한다.

「革은 巳日이라야 乃孚하리니」 개혁은 마지막 날(巳日, 또는 하루 해가 기울어진 뒤)에 결행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요컨대 시기가 충분히 무르익은 뒤에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는 개혁은 大通(元亨)하게끔 되어 어디까지나 바로고(正) 굳건해야(固) 후회없이 된다고 했다. 正固는 貞으로서 利貞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일관성을 뜻하기도 한다. 셋째는 아무리 바른 길이라도 맹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잊지 않는다. 개혁에 대한 세론을 세번씩 확인해야 한다. (革言三就) 논의나 계획도 세번씩 확인을 하고 여론도 세번씩 확인을 해야 된

다는 것이다. 넷째는 개혁의 결과, 그 效力이 온세상에 퍼져 사람마다 면목을 일신하게 되는데, 개혁이 일단락되면 때를 놓치지 않고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무작정 개혁만 밀고 나가면 凶이다. 일단 세상을 일신해서 新體制建設에 성공하면 구약은 더 묻지 않고 바른 길을 굳게 지켜 安靜에 주력해야 한다. 말하자면 居貞吉(正固를 지키면 吉)이다.

栗谷이 살고 간 시기는 朝鮮朝 개국(1392년) 이후 대략 150년 내지 200년사이(1536-1584)다. 하루 해를 표준으로 한다면 이미 정오를 넘어서서 상당히 서녘으로 기울어진 때로 봤을적하다. 巳日인 것이다. 栗谷은 자신이 사는 시대를 積弊가 무르익은 개혁의 때로 단정했다. 시대상황으로 보면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 없다. 진단은 정확했다손 치더라도 그는 입지해서 선두에 설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있지 않았다. 비극은 여기에 있었다. 栗谷의 비극은 朝鮮의 비극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

3. 개혁의 목표

정치에 있어서 때를 아는 것이 귀중하다면(政貴知時) 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事要務實) 개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時期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결실로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결실은 무엇인가. 물론 새로이 法을 세워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다. 백성구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말하자면 국가경영의 전략이다.

「道에서 병행될 수 없는 것은 是와 非이고, 事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利와 害이다. 한갓 利害로 급함을 삼고 是非의 소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制事의 義에 어긋나게 되고, 한갓 是非에만 뜻을 두어 이해의 소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應變의 權에 어긋나게 된다. 그런데 權에는 일정한 표준이 없고 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義에는 불변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宜에 합당한 것이 중요하다. 中을 파악 宜에 합당하면 是와 利는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진실로 나라에 편할 수 있고 백성에게 이로울 수 있다면 모두 할만한 일이고, 진실로 나라를 편안하게 할 수 없고 백성을 보호할 수 없다면 모두 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이니, 군자에게 어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가령 여기에 어떤 일이 있는데 시비가 분명하지 않고 이해를 분간하기 어려워, 취해야 될지 버려야 될지 주저가 된다면 또한 그 경중과 완급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重하고 급하다면 마땅히 취해야 하고 輕하고 緩하다면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니, 진실로 時宜에 통달된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을 해낼수 있겠는가.]

사회발전에 있어서 정신적 차원으로는 정의(是)와 불의(非)가 있고 물질적 차원으로는 이익(利)과 불이익(害)이 있다.

사회발전에는 「이상」추구라는 지향점이 있기 마련이고 정의는 바로 그런 지향점을 실현 가능하게 해 주는 행위의 표준이며 불의는 이에 대한 반동이고 역작용이다.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해, 즉 이익·불이익을 물질적으로 해석한다 치더라도 실은 우리의 일상행동에서 부딪치는 「사실」의 양면이고 따라서 사회발전에 있어서도 개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두가지의 상충되는 사상이 선택을 강요하기 일췌이다.

栗谷은 말한다. 일상적인 이해, 물질적인 이해만 급선무로 알고서 시비, 즉 정의나 불의나 하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면 이는 일을 마름(裁斷)하는 의리에 어긋나게 된다. 말하자면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뜻이다.

「일을 마름하는 의리(制事之義)란 다름아닌 가치관의 소재다. 최고로 값어치가 있는 지점인 것이다.

그와 반면에 무슨 일이고 정의니 불의니 하는 것만 앞세우고 이익·불이익을 따지지 않는다면 이는 변화에 대응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이런 유연성이 없다면 그 사회는 경직화되고 마는 것이다. 權이란 「저울질」로 임기응변하는 융통성을 말한다. 저울질이기 때문에 미리 定해 놓은 일정한 표준은 없지만 최선의 지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가치관에 있어서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일은 바로 「마땅함과 일치하는」(合宜) 일이고 임기응변에 있어서 최선의 곳은 바로 「中庸을 얻은」(得中) 곳이다.

따라서 사회발전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中庸을 지키면서 마땅한일」을 성취시켜 나가는 길인 것이다. 현대적 해석으로는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뜻한다.

건전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물질문명의 꽃이 피어야 비로소 이상사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4. 현대적 조명

栗谷은 지금으로부터 4백여년 전에 산 분이다. 그의 개혁사상이나 방법론이 오늘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시대상황은 그만두더라도 사회구조와 문화현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혹여 大經大法은 參考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령 ①栗谷이 살고 간 시대는 朝鮮朝 개국후 150여년으로 물물제도나 법질서가 梗塞化되어 法久弊生의 지경에 이르러 있어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였고 ②4大士禍를 겪는 등 정계에 독선과 부패가 심화되어 있었으며 ③세계와 근역의 혼란으로 계층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고 ④국제적으로는 北에서는 만주족이 대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가 하면 東에서는 倭(日本)가 2백여년간의 전국시대에서 통일(統一)의 성세를 맞아 대륙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어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내외사세가 이러한데도 정권담당자나 사대부층에서는 태평을 구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오늘 이 시대에 비취 보면 너무도 相似점이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오늘 이 시대가 「개혁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栗谷에게서 배울 수 있다. 栗谷은 時宜를 지시했고 개혁의 단계를 역설했다. 時宜는 어느 시대에서나 隨時處中으로 선택할 수 있고 단계는 사람(指導者)에 따라 밟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大經大法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오늘 이 개혁의 시대에 즈음해서 栗谷에게서 그 지혜를 빌릴 수 있다. 적어도 ①시기의 선택 ②立志·用賢·安民·教育·正名의 단계적 전개 ③사회정의와 경제성장의 조화에서 이룩되는 국가발전 등 栗谷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가르침을 내려 주고 있다. ●